

---

## 開會인사

**다케우치 :**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 < 한일국제연구회의 - 동아시아의 사생학 >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일본 가마쿠라 여자대학의 다케우치 세이이치입니다 . 올해 3 월까지 동경대학 글로벌 COE 사생학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했었고 현재도 객원교수 자격으로 동경대학 글로벌 COE 사생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태경 :** 저는 한국측 사회를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김태경 입니다 . 이번 회의 개최를 위해 일본측과 협조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다케우치 :** 그러면 회의에 앞서 , 양측 선생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희목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

**이희목 :** 안녕하십니까 ? 먼길 오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먼저 다케우치 교수님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 저는 성균관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이희목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사생학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양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훌륭한 학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제 전공 분야는 조선후기 한문학입니다 . 따라서 고전한문학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사생학과 전혀 관계가 없진 않습니다만 , 제 자신이 주의 깊게 보지 않

아서 별다른 공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제 개인에게는 상당히 공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9988234’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99 세까지 88 하게 살다가 2, 3 일 앓고 죽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일반 대중들의 사생관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로 보입니다. 모쪼록 양국의 학자들의 모인 자리에서 수준 높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많은 학적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국제학술회의는 당연히 성균관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해야 하는 것이지만 논술고사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케우치 :** 그러면 계속해서 동경대학 인문사회계연구과 이케자와 마사루 교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케자와 :** 방금 소개 받은 이케자와 마사루입니다. 동경대학 글로벌 COE 사생학 프로젝트의 대표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사생학>이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 이 회의는 올해로 3 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2008 년 중국 북경에서 동경대학 COE 와 중국 사회과학원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2010 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국제정치대학과 동경대학 COE 의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주최로 이렇게 세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인문과학연구소 이희목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경대학 글로벌 COE 사생학 프로젝트는 올해로 설립 9 년째가 됩니다. 두 번째 세션에 포함된 정효운 선생님의 논문에 이미 저희들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 선생님이 논문에서 소개하셨듯이, 서양의 사생학을 상대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동아시아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점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이 <동아시아의 사생학>이라는 연속된 국제학술회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열린 회의에서 밝혀진 바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서양 근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화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문화 전통에 근거한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인식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이상으로써 저희측의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케우치:** 그러면 여기서 양교의 기념품 교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목:** 연구소의 살림이 넉넉치 않아서 기념품이 별로 좋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케우치:** 그러면 바로 제 1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경대학 인문사회계 연구과 이케자와 마사루 선생님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